캠핑카 '알박기 주차' 눈살…단속 실효성 의문

공영주차장 장기점유…2년간 '견인 14건' 불과
단속 때만 도로변 이동…29일부터 과태료 부과

"여기가 공영주차장인지 캠핑카 보관소인지 모르겠습니다."

5일 오전 10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공영주차장. 주차장 한편에는 캠핑카와 카라반(트레일러), 소형 보트가 줄지어 세워져 있었다. 일부 트레일러는 바퀴 아래 벽돌과 쐐기를 받쳐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돼 있었고, 장기간 운행하지 않은 듯 차체와 손잡이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녹이 슨 소형 보트는 트레일러에 실린 채 주차면 두 칸을 차지하고 있었고, 거미줄과 날벌레가 엉켜 있는 차량도 눈에 띄었다.

시민들이 이용해야 할 공영주차장이 사실상 개인 차고지처럼 사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장에서는 장기간 주차된 것으로 보이는 캠핑카와 트레일러 8대가량이 확인됐으며, 수개월째 이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도 적지 않았다.

비슷한 풍경은 다른 공영주차장에서도 목격됐다. 북구 월출동 시민의숲 공영주차장에는 캠핑카와 트레일러 여러 대가 장기간 주차돼 있었지만 별다른 행정조치가 이뤄진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남구 주월동 옛 보훈병원 공영주차장 역시 트레일러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차량 아래 바닥은 주변 차량과 달리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 주차'도 반복되고 있다.

공영주차장에서 이동 명령이나 안내문이 부착되면 일부 차주들은 차량을 다른 공영주차장으로 옮기거나 인근 도로변에 장기간 불법 주·정차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가고 있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실제로 공영주차장 주변 갓길과 이면도로에는 장기간 세워진 캠핑카들이 줄지어 있었고, 일반 차량의 통행과 주차 공간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었다.

주민 김모(58)씨는 "공영주차장은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인데 몇 달씩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일반 차량은 주차할 곳이 없다"며 "단속을 해도 며칠 뒤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자주 본다. 밤에는 시야까지 가려 사고가 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북구 시민의숲 공영주차장의 캠핑 트레일러.

또 다른 주민은 "주말이면 공영주차장도 부족한데 캠핑카가 장기간 자리를 차지해 주민들이 골목을 몇 바퀴씩 돌며 주차할 곳을 찾는다"며 "공영주차장을 개인 차고지처럼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장기주차 문제는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4년 7월9일 개정된 주차장법은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한 차량에 대해 이동 명령과 견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 시행 2년이 넘도록 실효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 자치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장기 방치 차량 견인 실적은 동구 0건, 서구 12건, 남구 0건, 북구 0건, 광산구 2건 등 모두 14건에 그쳤다. 사실상 단속과 견인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이 같은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는 올해 2월 주차장법을 다시 개정했다.

개정안은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의 이동 명령과 견인 조치만으로는 반복적인 장기 주차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자치구 관계자는 "그동안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돼 반복적으로 장기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지는 만큼 반복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모든 공영주차장의 장기 주차 차량을 상시 확인하기에는 행정력이 부족한 현실인 만큼 시민들의 제보와 협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엄재용 기자 djawodyd0316@

'탱크데이' 스벅 본사 첫 압색…경찰수사 잰걸음

5·18법 위반·모욕 혐의…마케팅 자료·결재 문서 확보
배재고 '스타벅스 가야지' 외친 야구부 학생 12명 징계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스타벅스코리아 본사를 처음으로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날 5·18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을 빚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에 대해서도 학교 차원의 징계가 확정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 내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수사관 4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5월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한 지 76일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경찰은 마케팅 기획 자료와 내부결재 문서, 전산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모욕 혐의가 적시됐으며, 프로모션 기획과 승인 과정, 관계자들의 의사결정 및 고의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스타벅스가 지난 5월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Tank Day)'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표현이 5·18 당시 계엄군의 탱크를 연상시켜 희생자와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사회적 논란으로 번졌다.

앞서 5·18기념재단과 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등 오월단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들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신세계그룹이 제출한 스타벅스코리아 자체 감사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부실 감사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며, 자체 감사 당시 프로모션 담당 직원 5명 가운데 3명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사실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들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할 고의를 갖고 프로모션을 기획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이날 오월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단체는 "기획·승인·실행 전 과정을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의 위법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면서 "외부의 영향이나 압력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 결과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은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광주제일고를 상대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 등의 구호를 외쳐 물의를 빚은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에 대한 학교 징계 결과도 공개했다.

배재고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해당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을 중징계하고, 이를 따라 외친 학생 10명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학생 신상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 학생 일부는 경기 도중 광주일고 더그아웃을 향해 해당 구호를 외쳐 5·18민주화운동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백세건강 걸음학교 개강 5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들불홀에서 열린 '제2기 백세건강 걸음학교 개강식'에 참여한 주민들이 바르게 걷기 기본교육 등 걷기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전남광주 7월 평균기온 27.2도 '역대 3위'

열대야 16.6일 '역대 최다'…강수량, 평년의 절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난 7월 평균기온이 역대 세 번째로 높았고, 열대야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은 장기화된 반면 비는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무더위와 가뭄이 동시에 이어진 한 달이었다.

5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26년 7월 기후 특성'에 따르면 전남광주의 7월 평균기온은 27.2도로 평년(25.0도)보다 2.2도 높았다.

역대 7월 평균기온은 1994년 28.0도가 가장 높았고, 지난해 27.8도에 이어 올해가 27.2도로 세 번째를 기록했다.

열대야일수는 평균 16.6일로 평년(4.4일)의 3.8배에 달해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았다. 종전 최고 기록이었던 2024년 13.1일도 크게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여수시가 22일로 가장 많았고 완도군 18일, 장흥군 11일, 고흥군 11일 등 순이었다.

반면 강수량은 크게 부족했다. 지난달 강수량은 147.6㎜로 평년(259.4㎜)의 56.8% 수준에 머물렀고, 강수일수도 9.1일로 평년(13.5일)보다 4.4일 적었다.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5.1일로 집계됐다. 7월 중순부터 기상가뭄이 전남·광주에서도 확인됐으며, 하순에는 구례군에서 보통 수준의 기상가뭄이 나타났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